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2년 단기 4351년(음력 11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79호 2018년 1월 1일 월요일



다시 소중한 새해 2018년 새해가 밝았다. 궁궐과 절이 있었던 전북 익산 왕궁리 옛터에도 새해의 붉은 해가 쏟아진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석탑과 태양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시절을 읽어준다. 백제의 것인지, 신라 고려의 것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분명 그 시절의 석탑과 그 시절에 비추었던 태양을 보고 산다. 하나의 태양이 늘 우리를 비추고 그 날의 석탑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이다. 어제 없는 우리는 없는 것이다. 또 다시 새해가 소중해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월정사 산문폐쇄하나… 문화올림픽서 외면당한 불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평창동계올림픽 맞아
강원도 행사 20여개 펼쳐도
오대산과 월정사는 全無

평창 랜드마크 월정사지만
종교 이유로 사업서 배제
"종교 · 문화 혼동, 국가망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서 대중 홍보와 관심을 독려하지만 정작 개최지 평창의 랜드마크인 오대산과 월정사는 홀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월정사는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강원도 문화행사 사업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급기야 산문폐쇄라는 초강수 대책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불교계에 협조를 구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행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강원도청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주관하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은 △K-pop페스티벌 △DMZ평화예술제 △한일중 문화교류 △평창겨울음악제 △미디어아트전시 △오륜별빛문화예술거리 △옻 · 한지 축제 △동양화 교류전 △윈터 댄싱카니발 △단종국장 재현 △대도호부사행차 △망월제 등 25가지다. 이 행사들은 평창을 비롯해 강릉, 원주, 철원, 양구, 화천, 영월 등 강원도 각지서 펼쳐지지만 정작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의 중심인 오대산과 월정사 관련 사업은 전무하다.

월정사에 따르면 문화올림픽을 위해 사업제안을 해달라는 평창군 요청에 따라 오대산과 불교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만남' 사업계획서를 2016년부터 꾸준히 제출했지만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종교라는 이유로 기재부와 강원도가 사업서 배제시켰다는 게 월정사 측 주장이다. 또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6년 12월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백만등 밝히기'에 불교계가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교와 연계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불교를 외면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실제 본지가 강원도청 측에 확인한 결과 '백만등 밝히기'는 기재부 예산을 받아 불교와 무관하게 도청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종교와 연계되면 기재부 예산을 받을 수 없어 등(燈) 설치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국비와 지방비 총 35억 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정사 제안 사업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된 게 맞는지 묻자 "그런 것 같다. 구체적인 이유를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해 4월 조계종을 예방해 '백만등 밝히기'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9월에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전야제인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에 참석해 "스님들 도움으로 백만등 달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중일 불교계는 2018평창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올림픽 등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성원키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얼마 전 동지행사서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까지 실시하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등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를 위해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연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최 지사의 협조요청에 불교계는 적극 동참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는 받지 못한 셈이다. 〈A2면에 계속〉

福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무술년(戊戌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雪靖
대한불교조계종

2018년 신년특집호
A · B섹션 60면 발행

선지식에게 듣는다 A5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산문 밖의 禪 B1~2
윤후명 소설가



신년법어 · 신년사 A8~10

신년특집
군승파송 50년 A12~15



Post-Healing A18~20
2018 평창올림픽 특집 B5~7
새해 불교계엔 무슨 일이 B18
불교와 개 B19
불교 단체장 신년 포부 B23

사 령
명) 경영관리국 부장 김 경 숙
영업기획국 차장 표 경 희
2018년 1월 1일 부
이상 2명